

2013년 3월 18일 보낸 편지입니다. (1,516조회)

고비마다 나를 살린 책
節目ごとに私を生かした本

나는 지나온 내 삶이
私は過ぎ去った私の人生が

믿기지 않을 때가 있다.
信じられないときがある

이제 와 생각해 보면 참 꿈같은 일이다.
今来て、考えてみれば本当に夢のようだ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いくら考えてみても、私は何一つとりのない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에겐 '운명을 바꾸는
人だからだ。だが私には'運命を変える

습관'이 있었다. 바로 독서다. 돌아보면 인생의
習慣'があった。まさに読書だ。振り返れば人生の

고비마다 책이 있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節目ごとに本があった。何をしなければならぬかわからない

답답했을 때도 책이 있었고, 목표가 잘
もどかしかったときも本があつて、目標がよく

보이지 않을 때도 책이 있었다.
見えないときも本があつた

그때마다 책은 기적처럼
そのときごとに、本は奇跡のように

내 인생을 바꿔 주었다.
私の人生を変えてくれた

- 설연희의 《리딩파워》 중에서 -
- ソル・ヨニの<リーディングパワー>より -

* 인생의 고비마다
* 人生の節目ごとに

나를 살리는 책이 있습니다.
私を生かす本があります

그것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それを経験で分かる人は幸せです

외롭고 힘들고 막히고 막막한 시간이 오히려
さびしく、大変で、詰まって、さびしい時間がむしろ

책을 만나게 해주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本にあわせてくれる特別な時間です

좋은 책 한 권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いい本1冊が'今日の私'をつくり

'미래의 나'를 만들어 줍니다.
'未来の私'を作ってくれます

책을 사랑하세요.
本を愛してください

고비3

1. [명사] やま; さかり; 節目; 瀬戸ぎわ。

내세우다

1. [타동사] 立たせる; 立てる; 出す。

2. [타동사] 立たせる; 立てる。

막히다

1. [자동사] 막다의受動: 塞がる; つかえる; 詰まる; 手詰まる。

막막하다 [寞寞一]

1. [형용사·여 불규칙활용] 寞々としている; 静かでさびしい。

2. [형용사·여 불규칙활용] 頼るべきところがなくて孤独である。

2013년 3월 19일 보낸 편지입니다.(1,529조회)

'꿈춤'
'夢踊る'

때로는 무언의 몸짓이
たまには、無言の身振りが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한다.
心を一番よく伝達する

상처받거나 거부당하거나 이용당할지도 모른다는
傷ついたり、拒否されたり、利用され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

두려움과 걱정 밑에, 무수한 핑계와 변명 밑에
恐ろしさと心配の底に、限りない弁解や弁明の底に

깊고도 단순한 맥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深く単純な脈が我々を待っている

서로 이 맥박을 확인해야만
お互いこの脈を確認してこそ

온전해질 수 있다.
満足できる

- 마크 네포의《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중에서 -
- マーク・ネポの〈静けさが聞かせてくれること〉より -

* 춤도 '무언의 몸짓'입니다.
* 踊りも'無言の身振り'です

아무 말이 없어도 모든 것을 느낍니다.
何もいわなくても、すべてののこを感じます

우리가 꾸는 꿈도 '무언의 몸짓'입니다.
我々が夢を見ても'無言の身振り'です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갑니다.
何も見えないが、その道を行きます

살아 있는 사람만 춤을 출 수 있습니다.
生きている人だけが踊ることができます

살아 있는 사람만 꿈꿀 수 있습니다.
生きている人だけが、夢見ることができます

춤과 꿈은 한 몸입니다.
踊りと夢はひとつの体です

그래서 '꿈춤'입니다.
だから'夢踊る'です

추다3

1. [타동사] 踊る; 舞う。

무언 [無言]

1. [명사] 無言。

몸짓

1. [명사·하다형 자동사] 体を動かす様子; 身振り。

핑계

1. [명사·하다형 타동사] 口実; 言い訳; 言い逃れ; 弁明; 弁解。

맥박 [脈搏]

1. [명사] 脈搏; 動脈に周期的におこる鼓動; 脈。

온전하다 [穩全—]

1. [형용사·여 불규칙활용] かけたところやきずなどがなく完全である; 完全だ; 無事だ。

2013년 3월 20일 보낸 편지입니다.(1,558조회)

기꺼이 '깨지는 알'
喜んで'割れる卵'

혹시 여기에
もしここに

높고 단단한 벽이 있고,
高く、硬い壁があつて

거기에 부딪쳐서 깨지는 알이 있다면,
そこにぶつかつて、割れる卵があるなら

나는 늘 그 알의 편에 서겠다. 우리는 세상이
私はつねにその卵の側に立ちたい。我々は世の中が

얼마나 거칠고 가혹한지 잘 안다. 그러나 동시에
どれだけつらく過酷かよく分かっている。しかし同時に

세상이 멋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
世の中が素敵で美しくなることができるのを

역시 잘 알고 있다.
やはりよく分かっている

- 무라카미 하루키의《잡문집》중에서 -
- 村上春樹の<雑文集>より -

* 그렇습니다.
* そうです

세상은 거칠고 가혹합니다.
世の中はつらく、過酷です

그러나 그럴수록 '세상이 더 멋지고
しかし、そうであるほど'世の中をさらに素敵に

아름다울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이 필요합니다.
美しく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信頼と希望が必要です

그리고 누군가가 그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そして、誰かがその美しい世の中のために

기꺼이 '깨지는 알'이 되어야 합니다.
よろこんで'割れる卵'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때로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時には、選択事項ではなく

필수 사항입니다.
必須事項です。

사항 [事項]

1. [명사] 事項; 事柄。

2013년 3월 21일 보낸 편지입니다.(2,370조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다
どこへ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か分からない

뭘 해도 잘 풀리지 않는다.
何をしてもうまくいかない

아무리 해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どうしてもいい考えが浮かばな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다. 스스로가
どこへ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か分からない。みずからが

텅 빈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시기는 아마
空っぽのように感じる。このような時期は多分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의 인생에나
程度の差はあるだろうが、誰の人生にも

있게 마련이다. 나의 인생에도 물론
あるものだ。私の人生にももちろん

몇 번인가 있었다. 스무 살 전후의
何回かあった。20歳前後の

나날이 특히 그랬다.
毎日が特にそうだった。

- 무라카미 하루키의《잡문집》중에서 -
- 村上春樹の<雑文集>より -

*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 本当はどこに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

도무지 알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まったく分からない日があります

저의 20대도 방황과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私の20代にも彷徨いと絶望の時間がありました

긴급조치 9호로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수배받고,
緊急措置9号で大学に除籍され、手配され

강제징집 당하고, 이력서조차 받아주는 곳이 없어
強制徴収され、履歴書さえ受け取ってくれるところがなく

절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전기밥솥 하나 놓고
絶望しました。愛する妻と電気釜ひとつおいて

결혼하고 '우린 먹을 것이 없으니 꿈을 먹고 살자!'
結婚して'我々は食べるものがないから夢を食べて生きよう!'

함께 울먹이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ともに泣きながら、夢の話をしました

꿈을 먹고 살았더니, 그 꿈이
夢を食べて生きたので、その夢が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まさに現実になりました

나날이

1. [부사] 日毎に; 日に日に; 毎日毎日のように。

도무지

1. [부사] 否定的事実[事態]の結果を表わす語の前に付いて:どうしても; さっぱり; 全く; 一向に; まるっき
り; とんと;

皆目。

수배 [手配]

1. [명사·하다형 타동사] 手配。

2. [명사·하다형 타동사] 手配り。

징집 [徵集]

1. [명사·하다형 타동사] 徵集。

2. [명사·하다형 타동사] 強制的に物を集めること。

2013년 3월 22일 보낸 편지입니다.(4,038조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選択の余地がありませんでした'

모든 용기는 문턱과 같다.
すべての勇氣は敷居のようだ

문턱 앞에서 우리는 선택에 직면한다.
敷居の前で、我々は選択に直面する

아이를 살리기 위해 불이 난 건물 안으로
子供を生かすために、火が出た建物の中で

들어갈지 말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入ろうか入るまいか、決断を下さなければならな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選択の余地がありませんでした。"

그 아이를 구하려면 불타는 건물
その子供を救おうとすれば、燃える建物の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中に入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

내 삶도 이런 받아들임의 연속이었다.
私の人生もこのように受け止めることの連続だった

- 마크 네포의《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중에서 -
- マーク・ネポの<静けさが与えてくれること>より -

* 어머니는
* 母は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選択の余地がありません

아이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子供のために火水をいとわないです

불타는 건물 안을 맨 몸으로 뛰어듭니다.
燃える建物の中を全力で飛び込みます

자기 삶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自分の人生の旅程も同じです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選択の余地がないときがあります

모든 것은 오직 하늘에 맡기고
すべてのことをただ、天に任せて

불구덩이에 몸을 던집니다.
火の中に体を放り出します

문턱 [門—]

1. [명사] 敷居の上部。

2. [명사] ある事が「間近いこと」をたとえて言う語。

火水をいとわない → 火水 출처:두산동아

물불을 가리지 않다.

불구덩이[불꾸덩이]

[명사]

1. 불이 타고 있는 속.

2. 매우 위급하고 고통스러운 지경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던지다

1. [타동사] 投げ飛ばす; 投げる; ほうる。

2. [타동사] 体をほうり出す。

2013년 3월 23일 보낸 편지입니다.(1,544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김문화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キム・ムナ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내 마음의 꽃밭
私の心の花畑

청각 장애인인 영주 씨는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聴覚障害者であるヨンジュ氏は、移民することになります

시드니에 정착한 영주 씨는 캔터베리 여자고등학교에
シドニーに定着したヨンジュ氏はカンタベリー女子高等学校に

입학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入学します。そして、そこで一生忘れることが出来ない

감동적인 경험을 합니다.
感動的な経験をします

“원래 저는 상대의 입 모양을 보고 말을 이해합니다.
“もともと私は相手の口の動きを見て言葉を理解します

그런데 이곳 선생님들 중에 콧수염을 기르신 분들이 있어서
しかし、その先生方の中には口ひげを蓄えた方もいて

도대체 입 모양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到底口の動きを読めませんでした。しかし、ある日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 콧수염을 밀고 오신 거예요.
先生たちが私のために口ひげをそってこられました。

오직 저 한사람만을 위해서 말이지요.”
ただ、私一人のためだけにです”

- 박일원의《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합니다》중에서 -
- パク・イロンの〈あるがままの私を愛します〉より -

* 배려는
* 配慮は

상대와 눈높이를 함께 해주는 것.
相手の目の高さをともにしてあげること

공감은 내가 그에게 다가가 함께하는 것.
共感は私が、彼に近づいてともにすること

사랑은 단 한 사람의 학생을 위해서라도 아껴온 콧수염을
愛はただ一人の人の学生のためにも、大切な口ひげを

밀어주는 것. 청각장애인 영주씨는 호주인 담임선생님으로부터
剃ってあげること。聴覚障害のヨンジュ氏は豪州の担当先生から

20130323.txt

배려와 공감과 사랑을 배웠다고 합니다. 따뜻한 봄날,
配慮と共感と愛を学んだといいます。暖かい春の日

배려와 공감과 사랑의 꽃이 우리들 마음속에
配慮と共感と愛の花が我々の心の中に

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ぱっと咲いたらいいですね

정착 [定着]

1. [명사·하다형 자·타동사] 定着。
2. [명사·하다형 자·타동사] 他の物にしっかりくっつくこと。

아끼다

1. [타동사] やたらに扱わない; 惜しむ; 節約する; 大切に使う。
2. [타동사] 大切にする; 尊重する; 重んじる。

콧수염 [一鬚髯]

1. [명사] 口ひげ。

2013년 3월 25일 보낸 편지입니다.(2,933조회)

암을 이기는 법
がんを勝つ方法

마크는 암을 앓은 적이 있다.
マークはがんを患ったことがある

하지만 암을 이겨내면서 그의 영혼은 활짝 깨어났다.
しかしがんに勝ち抜いて彼の魂は、大きく目覚めた

병으로 고통받으면서 마음을 챙기는 놀라운 힘을
病気で苦痛を受けながら、心を落ち着ける驚くべき力を

얻은 것이다. 그를 통해서 우리도 힘을 얻는다.
得たのです。彼を通じて我々も力を得る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는 존재가 될 수
我々がどれだけ目覚めている存在になることができる

있는지를 그의 두 눈과 심장을 통해
かを、彼の目が心臓を通じて

보고 느끼게 한다.
みて感じるようになる

- 마크 네포의《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중에서 -
- マーク・ネポの〈静けさが聞かせてくれること〉より -

* 암을 이기는 법.
* がんに勝つ方法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こんな方法もあります

'오늘 하루만 잘 살자'는 방식입니다.
'今日一日だけよく生きよう'という方式です

내일 일은 내일로 넘기고, 오늘 하루를
今日のことは今日に譲り、今日一日を

내 생애 최고의 날로 여기고, 가장 맛있게 먹고
私の生涯最高の日と思い、一番おいしく食べて

가장 즐겁게 웃고 가장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一番楽しく笑って、一番熱心に愛することです

그렇게 한 달만 보내면, 아무리 고약한 암세포도
そのように1月過ごせば、いくら悪いがん細胞も

내 몸에 기생하는 것을 포기하고 조용히
私の体に寄生することをやめて、静かに

뒷걸음쳐 물러나게 됩니다.
後ずさりして、引き下がるようになります。

활짝

1. [부사] 限度いっぱいの様子。
2. [부사] 開け放したさま:一杯; 大きく。

깨어나다

1. [자동사] 覚める。
2. [자동사] 正気にかえる; 立ち直る; 覚める。

깨다1

1. [자동사·타동사] 覚める。
2. [자동사·타동사] 開ける。

넘다

1. [자동사·타동사] 越える; 超過する; (度が)過ぎる。
2. [자동사·타동사] あふれる。

고약하다

1. [형용사·여 불규칙활용] 悪い; ひどい; 不快だ。
2. [형용사·여 불규칙활용] 悪い; 気難しい; ふとどきだ。

물러나다

1. [자동사] 退く; 後退する。
2. [자동사] 退く; 引き下がる。

2013년 3월 26일 보낸 편지입니다.(4,991조회)

달콤한 여유
甘い余裕

식사를 마친 후
食事を終えた後

차를 마시거나 아이스크림을 먹는 시간은
お茶を飲んだり、アイスクリームを食べる

달콤한 여유다. '테이크아웃'한 커피 한 잔씩 들고
甘い余裕だ。'テイクアウト'したコーヒーを1杯ずつ飲んで

함박웃음을 지으며 거리를 몰려다니는 모습은
大笑いしながら、街を歩き回る姿は

더없이 행복해 보인다. 일에서 풀려난 여유와
何より幸せに見える。仕事から解放されたた余裕と

오전 일과로 인한 피곤함이 가시는
午前の仕事による、疲労感が抜ける

자유로운 시간대다.
自由な時間帯だ

- 박영택의《하루》중에서 -
- パク・ヨンテクの<1日>より -

* 차 한 잔,
* 茶1杯

아이스크림 하나가
アイスクリーム一つが

달콤한 여유를 선사해 줍니다.
甘い余裕をプレゼントしてくれます

그리 어렵지도, 먼 곳에 있지도 않습니다.
とても難ったり、遠いところにもありません

꽃피는 봄날, 산으로 들로, 그것도 어려우면
花咲く春の日、山に入ってそれも難しいなら

잠시 집 밖으로 나가, 맑은 공기 한 모금 마시는 것도
ちょっと家の外に出て、清らかな空気一口吸うことも

다시 없는 달콤한 여유의 시간입니다.
またとない甘い余裕の時間です

함박

1. [명사] 함지박의縮約形。

몰려다니다

1. [자동사] 追いまわされる; 逃げまわる。

2. [자동사] 群れをなして歩きまわる。

더없이

1. [부사] この上なく; またとなく; 何より。
인하다 [因一]
1. [자동사·여 불규칙활용] 基づく; よる。
2. [자동사·여 불규칙활용] 原因する; よる。
모금
1. [의존명사] 口に含む一回分の量。

2013년 3월 27일 보낸 편지입니다.(2,305조회)

초점거리
焦点距離

성격이 지나치게 불룩하거나
性格が度が過ぎて膨らんでいたり

오목한 렌즈 같아서 삶의 현실적인 지평에서
凹レンズのように人生の現実的な地平から

적절한 초점거리를 찾아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適切な焦点距離を探し出すことができない人々がいる

이런 사람에게는 천부적인 재능도
このような人に先天的な才能も

아무 소용이 없다.
何の意味もない

- 랄프 왈도 에머슨의《스스로 행복한 사람》중에서 -
- ラルフ・ワルド・エマーソンの<自ら幸せなひと>より -

* 초점을 잘 맞추면
* 焦点をちゃんと合わせる

볼록렌즈 하나만으로도 불을 낼 수 있습니다.
凸レンズだけでも火をつけることができます

지나치게 불룩해도 초점을 잘 맞추면 됩니다.
度が過ぎて膨らんでも焦点を合わせれば良いです

자기 재능을 가꾸는 것, 꿈을 이루는 것,
自分の才能を育てること、夢をかなえること

이 또한 인생의 목표에 초점을
これもまた人生の目標に焦点を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合わせることです

볼록하다

1. [형용사·여 불규칙활용] ふくらんでいる; ふくれている; 盛り上がっている。[큰말] 볼록하다
가꾸다

1. [타동사] 栽培する;(手をかけて)育てる。
2. [타동사] 手入れをする。

2013년 3월 28일 보낸 편지입니다.(3,327조회)

'짓다가 만 집'과 '짓고 있는 집'
'建てただけの家'と'建てている家'

저는 가끔
私はたまに

건물을 짓는 곳에 갑니다.
建築中のところに行きます

가 보면 그렇게 흥하고 먼지가 나고 냄새가 나고
行ってみれば、良くなくて、ほこりが出て、においが出て

복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끗이 마감을 하고
複雑になることはありません。しかしきれいに仕上げて

거기에 소파를 가져다 놓고 인테리어를 다 끝내면
そこにソファを持ってきて、インテリアを全て終えれば

우리가 쉴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이 됩니다.
我々が休むことができる美しい家になります

문제는 짓다가 그만두는 것입니다.
問題は、建ててそのままにすることです

세상에서 가장 흥한 것이
世の中で一番よくないことが

짓다가 만 건물입니다.
建てただけの建物です

- 문성모의《하용조 목사 이야기》중에서 -
- ムン・ソンモの<ハ・ヨンジョ牧師の話>より -

* '짓다가 만 집'과
* '建てただけの家'と

'짓고 있는 집'은 다릅니다.
'建てている家'は違います

'짓다가 만 집'은 흥물처럼 보이지만
'建てている家'は、凶悪に見えるが

'짓고 있는 집'은 미완의 예술품입니다.
'建てている家'は、未完の芸術品です

가우디의 건축물이 그렇듯 어떤 건물은 수십년,
ガウディの建築物がそうであるように、ある建物は数十年

수백년에 걸쳐 짓고 있고, 그 '짓고 있는 집'을
数百年かかって建てている、この'建てている家'を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見物しようとたくさんの人々が列を連ねて

미래의 희망을 그려봅니다.
未来の希望を描きます

짓다

1. [타동사·스 불규칙활용] 建てる。
2. [타동사·스 불규칙활용] 炊く。

흉하다 [凶—]

1. [형용사·여 불규칙활용] よくない; 悪い。
2. [형용사·여 불규칙활용] 不吉である; 縁起が悪い。

복잡 [複雑]

1. [명사·하다형 형용사] 複雑; 重なり混じって込み入っていること。

시메키리 [締め(め)切り]

1. [명사] 마감.
2. [명사] 항상 닫혀 있음.

흉물 [凶物]

1. [명사] 性質の陰険な人; 凶悪な人。

걸치다1

1. [자동사] 걸다1の受動。
2. [자동사] 高い物にかけて置かれる; 掛かっている。

2013년 3월 29일 보낸 편지입니다.(3,116조회)

'백남준' 아내의 고백
'ペク・ナムジュン'の妻の告白

가난하던 시절,
貧乏だった時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이 비싼 TV를 수백대씩
お金についての概念がなく、高いテレビを数百台

사들이던 그 때문에 나는 더 가난하게 예술을 해야 했지만,
買い入れたために、私はさらに貧乏に芸術を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が

그의 작품이 하나씩 탄생하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
彼の作品がひとつずつ誕生することを見るたびに、とても

경이롭고 신기해 모든 아픔을 잊고 그의 다음 작품을
驚異で、不思議にすべての痛みを忘れて、彼の次の作品を

기대하던 나를 발견하곤 했다. 그가 뇌졸중으로
期待した私を発見したりした。彼が脳卒中で

쓰러진 뒤 옆에서 간호하느라 작품 창작은 아예
倒れた後、横で看護するのに作品創作は全く

손 놓고 있었지만, 그래서 남준이 이것 때문에
やめていたが、だからナムジュンがそのために

무척 미안해했지만 나는 후회나 미련이 없다.
本当に謝ったが、私は後悔したり未練がない

백남준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ペク・ナムジュンと共に生きたこと自体が

내게는 '아트'였으므로.
私には'アート'だったから

- 구보타 시게코의《나의 사랑, 백남준》중에서 -
- 久保田成子の〈私の愛、ペク・ナムジュン〉より -

* 한 여자가
* 一人の女性が

한 남자와의 지난 삶을 회고하면서
一人の男性との過ぎた人生を回顧しながら

'예술'이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芸術'がだろと、告白することは驚きです

옹달샘에 오신 분들이 식사 후에 "음식이 예술이다"고
小さな泉にいらっした方々が食事の後に"食事が芸術だ"と

칭찬해 주시는 것도 엄청난 힘을 안겨 줍니다.
称賛していただくことも、とてつもない力をあたえてくれます

우리가 먹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我々が食べて、愛して、生きていくこと

그 모두가 사실은 '예술'입니다.
そのすべてが実際は'芸術'です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お金で換算できない

최고의 걸작입니다.
最高の傑作です

사들이다

1. [타동사] 買入れる; 仕入れる; 買込む; (商人が商品を)仕込む。

가난

1. [명사·하다형 형용사] 貧乏; 貧しいさま; 貧困。

경이 [驚異]

1. [명사·하다형 자동사] 驚異; 驚き怪しむべきこと, またその驚き。

뇌졸중 [腦卒中]

1. [명사] 『의학』腦卒中。

아예

1. [부사] 初めから; てんで; てんから。

2. [부사] 絶対に; 決して。

-노라고

1. [어미] 動詞の語幹や時制の-았-/-었-/-겠-に付く連結語尾で…한다고·-노라 하고の意を表わす: …(した)のだと; …(する)であろうと; …(する)ぞと。

2013년 3월 30일 보낸 편지입니다.(3,009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박영미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パク・ヨンミ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네 개의 방
4つの部屋

인도 속담에 따르면
インドの諺によれば

모든 사람은 육체, 정신, 감정, 영혼이라는
全ての人は肉体、精神、感情、魂という

네 개의 방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4つの部屋を持っている。しかし、大部分の人は

한 방에서만 산다. 하지만 일생을 풍요하게
1つの部屋だけで住む。しかし、人生を豊かに

살아가려면 날마다 네 개의 방에
生きて行くには、日々4つの部屋に

규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定期的に入らないといけません

당신은 지금 어느 방에 있는가?
あなたは今どの部屋にいる？

- 차동엽의《내 가슴을 다시 뛰게 할 잊혀진 질문》중에서 -
- チャ・ドンヨプの<私の心を再び躍らせる忘れられた質問>より -

* 지금 내가 있는 방은 어디일까?
* 今私がいる部屋はどこだろう？

그 방이 내가 선택한 방이 맞는 것일까?
その部屋は私が選択した部屋とあっているだろうか？

타인이, 혹은 사회가 떠밀어 넣은 방은 아닐까?
他人が、あるいは社会が強く押す部屋ではないか？

다른 무언가에 의해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ほかの何かによって、それを選択するようになった

남을 원망하는 것을 아닐까?
他人を恨むことではないか？

또 나는 나를 얼마나 돌아보고 있을까?
また私は私をどのように振り返っているか？

혹 그 4개의 방문에 자물쇠를 달지는 않았을까?
もし、この4つのドアに鍵がかかってないか？

내 자신에게 던지는 수많은 질문과 함께
私自身に投げかけられたたくさんの質問とともに

나 자신을 깊이 되돌아봅니다.
私自身を深く振り返ります

속담 [俗談]

1. [명사] 諺; 俗諺; 俚諺。

2. [명사] 俗說; 世間話。

わすられる [忘られる]

1. [하1단 활용 자동사] 잊히다. [동의어]わすれられる.

원망 [怨望]

1. [명사·하다형 타동사] 怨望; 恨み。

2. [명사·하다형 타동사] うらみに思うこと; 恨むこと。

ドアに鍵を付ける → 付ける 출처:두산동아

문에 자물쇠를 달다.